

건강 관리하면 포인트까지 ‘쑥쑥’ 서울시, 손목닥터 7만명 추가모집

ICT 기술 이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참여도 따라 최대 10만 포인트 지급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의 일상 건강 관리를 독려하고자 ‘손목닥터 9988’ 참여자 7만 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민 모두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손목닥터 9988은 정보통신 기술(ICT)을 통해 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다.

추가 모집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오는 27일부터 스마트워치를 제공받아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5만 명을 모집하고, 내달 18일부터는 개인 스마트워치 또는 휴대전화(스마트폰)로만 참여를 원하는 시민 2만 명을 선발한다.

1차 5만 명 모집은 손목닥터 9988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19~75세(1948년 1월1일 ~2004년 12월31

일 출생자)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인, 대학생,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는 스마트워치 또는 전용 앱을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최종 승인된 참여자에게 신청자에 한해 건강관리도우미 스마트워치를 지원하고, 전용 앱을 통해 건강 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후 비대면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달 18일부터는 손목닥터 9988 전용 앱이 정식 개설돼 참여가 더욱 편리해진다. 그간 누리집(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지만, 전용 앱으로도 참여 신청

이 가능하다.

시는 상대적으로 집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을 별도 모집해 참여율을 높이는 등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가 필요한 출산모,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보건소 대사증후군 센터 등록자, 신체활동 독려가 필요한 중장년 1인 가구 및 고립 은둔 청년과 어르신 등이 대상이다.

손목닥터 참여자에게는 건강 활동 참여도에 따라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걷기만 해도 하루에 200포인트를 주고, 주 3회 이상 꾸준히 걸으면 추가로 500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건강활동으로 최대 8만8200포인트를 쌓을 수 있고, 홈트레이닝, 명상 등 서비스에 참여하면 1만1800포인트를 더 모을 수 있다.

포인트는 ‘서울페이 머니’로 전환해 병원, 약국, 편의점 등 서울시내 11만여 개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이주호, 전남 지역 방문해 교육특구 설명회

글로벌대 간담회 참석, 비전 논의 지역 주도 교육혁신 적극 지원할 것

교육부는 오늘 지역 주도 교육혁신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대 간담회와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전남)’를 개최하고, 나주 혁신도시의 교육현장을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되는 글로벌대 간담회에 참석해 이병운 순천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 및 지자체,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전라남도의 혁신 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대학의 비전·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계적인 특화분야 강소지역기업을 육성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순천대의 혁신 기획안과 실행안 마련에 참여했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학교 교직원, 지역기업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학생대표로 순천대학교 총학생회장도 참여한다.

글로벌대 간담회 이후 이주호 부총리는 전남교육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전남)’에 참석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주도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지역인재의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지난 2일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전남)’를 시작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16개 시도를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 사례를 지자체 관계자가 직접 공유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 글로벌 대학 등 교육개혁 정책을 통해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교육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내일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1~3구간 50만원, 4~6구간 30만원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혜택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첫째 자녀는 700만원 지원 둘째 이하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1~3구간 지원단가(연간)	520만원	570만원
4~6구간 지원단가(연간)	390만원	420만원

자료/교육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오는 22일 9시부터 12월 27일 18시까지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2024학년도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둘째 이하 자녀

들만 등록금 전액을, 첫째 자녀들은 700만원까지만 지원받지만,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한,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단가는 2023년 대비 9.6%(50만원), 4~6구간의 지원 단가는 7.7%(30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1~3구간의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520만 원에서 570만원

으로, 4~6구간은 39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오른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가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파주 장단콩 축제 24일 임진각서 개막

먹거리에 다채로운 체험까지

파주장단콩 및 파주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제27회 파주장단콩축제가 ‘웰빙명품! 파주장단콩 세상!’이라는 주제로 24일부터 26일까지 파주시 임진각광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파주장단콩축제는 ‘알콩(불거

리) ‘달콩(떡거리) ‘놀콩(놀거리) ‘살콩(살거리) 4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알콩’은 파주장단콩전시관, 장단콩요리경연대회, 파주시민 거리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말한다.

‘달콩’은 파주장단콩을 활용한 가공음식 먹거리마당과 파주시새마을회, 한우협회 등 주민참여형 전문음식점을 통

해 제공되는 먹거리를 말하며, ‘놀콩’은 꼬마메주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인 놀거리를 의미한다.

마지막 ‘살콩’은 파주장단콩을 비롯해 농특산물 판매장과 가공품 판매장, 시골 장터 분위기를 재현한 재래장터 등이 진행되는 살거리를 말한다.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문산역과 임진각 행사장까지 순환버스를 수시로 운영한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203% 고금리’ 불법대부 일당 검거

영세업자 2000여명에 폭리 챙겨 10여년 불법행위... 69억 부당이익

서울 동대문 등지에서 10년 넘도록 불법대부업을 하며 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덩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 2000여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

를 받아 69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내역을 50%만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적발된 불법대부업자 A씨는 과거 2차례에 걸쳐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덩미를 잡혔다.

서울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보고 추정보전을 신청해 9월말 법원으로 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의 추정보전금액 중 최대규모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21일 (화)
음력 : 10월 9일

수도권 날씨
2 ~ 1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연천 -2/13, 동두천 -1/14, 가평 -2/13, 파주 -2/13, 서울 2/14, 양평 -1/13, 인천 3/13, 수원 2/14, 용인 2/14, 평택 -1/14

백령도 9/14

해돋이 / 07:17 | 해질 / 17:1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日방위상 “北 정찰위성 발사 강행 가능성”
▲“푸틴, 22일 G20 화상 정상회의 참석...오랜만에 서방 정상 만날 것” /사진 뉴스스

▲中 휴대폰 수출, 7년간 5억대 이상 감소
▲올 1~10월 중국내 외국인투자 기업 전년비 32% 증가



▲KDI, 중동·북아프리카서 韓 스타트업·중소 발전 경험 공유
▲“투신 막기 위해”...美금문교 아래 측구장 7개 면적 그물망 설치 /사진 뉴스스